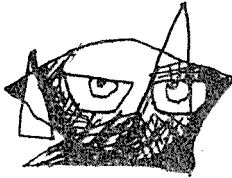


# 진 촌충을 구제하고 나서



선린중학교

1학년 6반 심 학 준

지금은 건강해진 몸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나를 볼때마다 나는 한국기생충박멸협회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지난 봄 학교에서 기생충 검사를 실시했을때 나는 기생충박멸협회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희귀한 광결열두조충이라는 기생충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할머니와 함께 기생충박멸협회에 찾아갔었습니다. 그곳 선생님들께서는 나의 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검사하시고는 민물고기를 낚것으로 먹은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3년전부터 방학때마다 포항에 계시는 아버지께 놀러갔던일을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나의 즐거움중 하나가 아버지를 따라 낚시하러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낚시 해주신 민

물고기를 여러빈 낚것으로 회를 만들어 먹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 고기 이름이 농어라고 했던것 같았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광결열두조충(진촌충)은 보통 길이가 10cm가량되는 진것으로 그것이 몸 속에 기생하게되면 몸이 허약해지고 빈혈증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진촌충에 대해 여러가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설명을 들은 나는 내가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농어고기가 나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해마다 낚시하러갔던 그 즐거움도 고기를 잡아 회해먹던 맛도 모두 후회스러워 졌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무료로 치료해줄테니 며칠후에 다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빨리 그 기생충을 내 몸속에서 빼내고 싶은 마음때문에 그 며칠간을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반

면 치료를 받을 생각을 하면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사내아이는 용감해야 된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고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저는 어머니와 함께 협회블 찾아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지어주신 약을 먹고 설사약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설사약은 약을먹어 기진백진한 긴촌충이 설사와 함께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가루약을 물에 타서 마실 때 저는 너무나 써서 하마트면 뱀아 버릴 뻔 했지만 그 기생충을 나의 몸속에서 없애버려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눈을 꼭 감고 약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설사약으로 저는 설사를 했습니다만 그 기생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이렇게 해서 여섯번째 까지 약을 먹고 설사를 했지만 충은 나오지 않았고 제가 변을 볼 때마다 광결열두조충이 나오지 않았나 세밀히 조사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도 점심도 굶었기 때문에 지칠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그곳에 계신 선생님 모두도 지치셨지만 한번 더 약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또 약을 먹었습니다. 얼마 후 배가 아파 설사를 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힘주어 눈 번속에서 하얀 주먹만한 뭉치가 푹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이구나 하고 무척 반갑고 쾌심한 생각이 한꺼번에 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기뻐하시며 지금까지 지쳤던 피로도 삭

가서버린듯 그 기생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요충도 함께 섞여나왔고 지금 나온것이 광결열두조충(긴촌충)이라는 말씀 들은 저는 이제는 나의 뱃속에 아무 기생충도 없다는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뽕뽕뽕쳐진 그 기생충을 조심스럽게 풀으셔서 둥그렇게 놓으셨는데 그 길이가 10여m 된다는 말씀은 미리 들었지만 실제로 보았을 때 나는 크게 놀랄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곤 항상 어지럽고 밥맛이 없었던것은 이 기생충이 나의 양분을 다 빨아먹었기 때문이라는것을 깨닫고 길게 늘어놓은 그 기생충이 몸써 괴심했지만 어린소녀이 잘 참아주었다는 선생님의 칭찬과 더불어 저 기생충에게 내가 이기고 말았다는 승리감. 때문에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퇴근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늦게까지 수고하신 선생님 들께 진심으로 감사할 드리고 포항에 계시는 아버지와 그곳에서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도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곳에도 기생충박멸협회가 있으니 거기에서 검사를 받으면 될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새삼 우리 주변에 이렇게 국민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있는 봉사단체가 있다는것에 대해 감사할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기생충에 걸려 소중한 우리의 영양분을 기생충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위해 위생적인 식생활을 할것을 어머

님과 약속하고 나만이 아닌 내걸의 친구나 동네의 이웃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가 기생충검사를 받아서 기생충이 없는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중 보통 사람들은 기생충 하면 회충만을 생각하고 일년에 두번 약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저는 친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설명해주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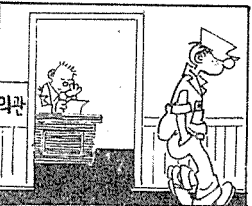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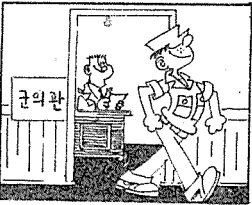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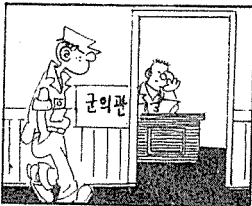
끝으로 지금은 기생충이 없는 나의 건강을 찾아주신 기생충박멸협회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국민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힘써 봉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우수계

### 증거

「이혼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틀 꼬 물트 워커



판사는 『마그리트』 부인에게 물었다.  
「저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에 대한 증거는 있는가.」  
「네, 있습니다. 『마그리트』 부인은 자기 배를 손가락으로 가르키며, 「이 속에 있는 얘기는 저 사람이 만들어 준 얘기가 아닙니다.」

### 버릇

거리의 아가씨들을 걸친하는날. 마침 산부인과 의사가 급한 일이 생겨 이비인후과 의사가 대리로 보게 되었다.

첫번째 아가씨가 먼저부끄럼을 무릅쓰고 진찰대위에 누웠다. 의사는 걸진경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나서 평상시의 버릇대로  
「자. 이제 아아- 소리를 내봐요.」

### 편집후기

● 이번호에는 지상 세미나 「기생충약을 말한다」를 실는다. 당초 계획은 공개

행사로 청중을 모아놓고 벌여보려던 것인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행사는 중지하고 그대신 지상세미나로서 그 토론요지 전문을 실는다.

● 지상세미나를 실기위해 특징은 이번호에는 절로기로 했다.

● 특집화보로 달팽이를 중간숙주로하는 「엔손」 주혈흡충(住血吸虫)과 편모충병(鞭毛虫病)의 일종인 「잠자는 병」 「자가스 병」에 관련된 재미있는 사진 자료를 입수, 자신있게 이번호 특중으로 내놓는다.

● 특별기교로 임한중 이순형교수의 두 보고문을 실는다. 임교수는 세계 기생충 학회의 「기생충학의 최근동향」을, 이교수는 제주도에서 실시한 「상피병 보고記」를 유모러스한 필체로 재미있게 써 주셨다.

● 독서의 계절을 맞이하여 읽을거리가 많은 기획물을 보내드리려는 계획 아래 신경을 써서 꾸며본 9월호다. 독자여러분들의 평을 두려워 하며, 예정일보다 좀 늦어서 이번책을 보낸다. <뚜리>